

6. 文化と服装・문화와 복장

A. 馬上才・마상재

朝鮮通信使の構成は、正使・副使・従事官・小童・学者・軍官・医師・画員・写字官・樂士・訳官などで、儒学、仏教、書道、美術、武芸、芸能などの分野で特に優秀な者が選ばれました。総勢約400から500人の通信使一行によって、幕府への進物とともに有形無形の優れた朝鮮文化がもたらされました。なかでも朝鮮曲馬・馬上才とよばれる馬の曲乗り(所謂馬上でのアクロバット演技)は、徳川歴代将軍をはじめ多くの注目を集め、日本の曲馬や伝統馬術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

日本初の朝鮮曲馬・馬上才は、第4次通信使の前年にあたる1635(寛永12)年4月20日、江戸城和田倉門・八代須河岸馬場における3代将軍家光の上覧です。この朝鮮曲馬上覧は、前年の1634(寛永11)年、家光がかねてより関心の高かった朝鮮國馬術を、対馬藩を通じて朝鮮側の観覧を要請、これを受けて馬上才(馬上方、乗り手のこと)の金貞、張孝仁の2名と駿馬4頭、馬医らが特別に派遣され、実現したものです。2人の馬上才は、家光をはじめ大名、旗本など多くの見物人の前で技を披露、当時の記録に、「立乗」・「乗さがり」・「片鐙乗」・「仰乗」・「倒乗」といった技がみえます。

家光はこれを高く評価し、銀千枚、時服50枚を贈呈しました。以後、通信使に馬上才が編成されて上覧が慣例となり、1763(明和元)年3月1日の10代将軍家治の上覧まで計8回行なわれました。

朝鮮통신사의 구성은 정사·부사·종사관·소동·학자·군관·의사·화가·사자관·악사·역관 등으로 유학, 불교, 서예, 미술, 무예, 예능 등의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자가 선발되었다. 총 약 사오백명의 통신사 일행에 의해 막부에 보내진 선물과 함께 유형 무형의 뛰어난 조선 문화를 가지고 왔다.

특히 조선 곡마·마상재라 불리는 말의 곡예(이른바, 말 위에서의 숙련된 연기)는 도쿠가와 역대 장군을 비롯해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일본의 곡마나 전통 승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최초의 조선 곡마, 마상재는 제4차 통신사의 방일 전년도인 1635년 4월 20일, 에도성 와다 쿠라몬 인근 야요스카시 마장에서 3대 장군 이에미즈가 관람했다. 이 조선 곡마 관람은 이전부터 조선마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에미즈가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 측에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조선측이 마상재인 김정, 장효인 2명과 준마 4마리, 마의들을 특별히 파견하면서 실현되었다. 두 사람은 마상재는 이에미즈를 비롯한 영주, 무사 등 많은 구경꾼 앞에서 기술을 선보였다. 당시 기록에는 “서서 타기”, “매달리기”, “외등자 타기”, “누워 타기”, “물구나무서서 타기” 등 기술이 보인다. 이에미즈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은 천 장과 옷 50벌을 하사했다. 이후 통신사에 마상재가 편성되어 관람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763년 3월 1일 10대 장군 이에 하루의 관람까지 총 8회 열렸다.

저명한 마술가로 오즈보 본류의 시조·사이토우 사다야스(관직명 主税 치카라)는 1682년 9월 5일 5대 장군 쓰나요시 관람, 1711년 11월 4일 6대 장

著名な馬術家で大坪本流の祖・斎藤主税定易は、1682(天和2)年9月5日、5代將軍綱吉上覽、1711(正徳元)年11月4日、6代將軍家宣上覽に立会っており、その衝撃を自著『武馬必用』の中で次のように記しています。「朝鮮曲馬というに八つの品あり、一、馬上立ニ、馬上倒立三、馬上倒曳四、馬上左右七歩五、馬上横臥六、馬殿上仰臥七、馬脇隠身八、雙馬、以上八つの曲なる。」(以上、日本騎射協會刊)

군 이에노부 관람에 참여하고, 그 충격을 그의 저서 『무용필용』에 「조선곡마라는 것에 여덟 가지 품위가 있다. ①마상립, ②마상도립, ③마상도예, ④마상좌우칠보, ⑤마상횡와, ⑥마전상앙와, ⑦마협은신, ⑧쌍마 이상 여덟 곡이다」라고 기록했다. (이상, 일본기사협회자료)

「吹上御覽所の馬上才」(高麗美術館藏)・「취상어람소의마상재」(고려미술관 소장)



馬上才図(個人藏)二代目鳥居清信は、朝鮮通信使の人気の一つ馬上才(騎馬手)による朝鮮馬技の「曲馬上覽」を描きました。「曲馬上覽」は3代將軍家光の所望により、朝日親善の恒例の行事となった。

마상재 그림 토리이 키요노부(2대)는 조선통신사에서 인기가 있는 것 중 하나인 마상재에 의한 조선의 말 다루는 기술인 “곡마상람”을 그렸다. “곡마상람”은 3대 장군 이에미츠의 요청으로 조선과 일본 친선의 연례 행사가 되었다.



「馬上才繪卷」1797년, (幽玄齋藏)
「마상재회권」1797년 (유겐사이 소장)



馬上倒絶 마상도절



左右七步 좌우칠보



韓人戲馬圖 한인희마도



雙騎馬 쌍기마



鎧裏藏身 등리장신



馬上倒立 마상도립



馬上立 마상립



馬上仰臥 마상양와

B. 衣服・의복

1811年徳川家齊の將軍職襲位を慶賀するための、来日した一行を描いたものです。しかしこの時の通信使来日は対馬止まりとなり、これが最後の来日となりました。公服とは朝廷に出仕し、公式の席に用いる礼服であり、朝服とは朝廷に出仕するための制服のことです。

1811년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장군직 계승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일행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통신사 일본 방문은 대마도에서 묵게 되었고, 이것이 마지막 일본 방문이 되었다. 정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다. 공복은 조정에 출사하여 공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예복이며, 조복이란 조정에 출사하기 위한 정복이다.

朝鮮通信使人物図(部分)、東京国立博物館蔵
조선통신사인물도(부분),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正使公服 정사공복



正使朝服 정사조복



副使公服 부사공복



副使朝服 부사조복



上々官-服色 상상관 복색



上々官-服色 상상관 복색



上官 상관



上判事 상판사



小童(中官) 소동(중관)



小童(中官) 소동(중관)



惣人(中官)총인(중관)



악사(중관)



惣人(下官)총인(하관)



樂士 악사



樂士 악사



朝鮮人物旗仗輜輿之図(部分、蓮左文庫蔵)
조선인물기장 교여도(부분, 렌사문고 소장)



